



# THE 23rd INTERNATIONAL INSAM TRADE FAIR BUSINESS MEETING

주최 금산군 주관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2022.10.31  
ISSUE NO. 9



## 금산이 Geumsan Ginseng 뿌리입니다

2022 제23회 국제인삼박람회 수출상담회 성공 개최  
THE 23rd INTERNATIONAL INSAM TRADE FAIR

### BUSINESS MEETING WELCOME PARTY

주최 금산군 주관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 제40회 금산인삼축제 피날레, 역대 최대 103만 명 운집 어린이·젊은 세대 맞춤 프로그램 및 인삼 활용 영역 확대 집중



제40회 금산인삼축제가 지난 10일 폐막식을 끝으로 11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된 올해 축제에 전국에서 103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와 40회를 이어 온 금산인삼축제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

금산군은 올해 축제를 통해 어린이와 젊은 세대가 인삼을 선호하는 계기를 만들고 인삼 활용 영역을 약재에서 음식으로 확산하는 데 집중했다.

미래 로봇관에서는 댄스로봇, 자이로 로봇만들기, 곤충 로봇만들기, 로봇 퍼포머와 사진촬영 등을 통해 어린이들의 참여도를 높였으며 코로나를 물리치는 인삼로봇을 구현해 인삼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부여했다.

청소년들의 젊은 열기를 분출할 수 있는 대한민국 힙합콘서트, 금산인삼 K-POP콘서트 등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인삼을 가미한 간편 요리 등을 판매하는 푸드트럭은 젊은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큰 인기를 끌었다.

축제음식 판매코너에서는 삼계탕 등 금산 고유의 맛을 담은 음식을 판매했으며 인삼약초요리전시코너에서는 40여 종의 품격 있는 인삼약초 요리를 선보여 인삼 소비의 새로운 판로 가능성을 확인했다.

기존의 틀을 벗어난 개·폐막 행사도 참신한 모습을 선보였다. 의전 행사를 간소화하고 관람객 중심의 금산의 멋이 물씬 느껴지는 연출로 축제의 시작과 마무리를 장식했다.

인삼약초시장 '차 없는 거리'에서는 색다른 매력을 보여줬다. 인삼저장거리를 비롯해 인삼아트체험, 건강미용체험, 거리의 라디오 쇼 등 풍성한 볼거리를 공개해 젊은 가족층이 대거 몰리며 주 행사장 못지않은 인기를 구사했다.



올해 금산인삼축제는 홍보도 남달랐다. 전국 TV광고  
고를 비롯해 젊은층을 대상으로 변모하는 시대 흐름  
을 적극 반영하는 주요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 인플  
루언서 초청 팸투어, SNS채널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축제를 통해 얻어낸 경제적 성과도 주목할만하다. 국  
제인삼교역전에서는 1000만 달러의 상담 성과를 올리  
며 인삼약초산업의 발전 계기를 마련했고 인삼약초시  
장도 붐비는 관광객들로 인해 활기를 띠었다.

축제장의 야간 콘텐츠도 보강됐다. 빛 조형물과 미  
디어가 융합된 빛의 정원을 조성했으며 K-트롯대전,  
거리의 버스킹, 추억의 가요톱10 등 새로운 야간 공연  
을 추진해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에 어울리는 축제

의 흥을 더했다.

이외에도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인 건강체험관과 인  
삼캐기체험을 포함해 응답하라 1981, 대한민국 공군  
특수 비행팀 블랙이글스 에어쇼 등 다채로운 프로그  
램이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금산인삼축제는 전국 인삼축제의  
원조로 혁신과 변화를 이끌고 있다”며 “이번 40회  
축제를 기점으로 과감한 도전을 통한 세계 축제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려인삼의 종주지 금산군의 인삼축  
제가 인삼약초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고 말했다. [금산군]

# 제40회 금산인삼축제현장



# 금산군, 바이어초청 수출상담에서 1천만달러 상담성과 제23회 국제인삼교역전, 해외바이어 20개국 35명 참석



제40회 금산인삼축제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제23회 국제인삼교역전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10월 5일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에서 해외바이어 20개국 35개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했다.

금산군과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이 마련한 이번 행사는 관내 고려인삼 29개 수출기업과 해외 20개국 35명의 고려인삼 수입바이어 간의 수출상담회로 총173건의 수출상담이 진행됐다.

수출기업과 해외바이어 간 1대 1매칭 상담회로 진행된 이번 수출상담회에서는 “금산인삼농협”, “금산진생협동조합”, “삼이야푸드”, “금산약초인삼영농조합법인” 등이 Mailo F&B, PANASIA, J-US Global, URGANA INDUSTRY 등과 130만달러의 수출 MOU를 체결하였으며, 총 1천만달러의 상담실적을 거두는 등 고려인삼의 수출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오스트리아, 베트남, 일본, 태국, 예멘, 몽골, 뉴질랜드 등 20개국 35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가하여 금산인삼의 품질 우수성에 공감하면서 적극적인 상담이 이뤄졌다.

20개국에서 온 바이어들은 각 나라별로 선호하는 제품에 대해 차별성을 보였으며,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바이어는 홍삼차, 흑삼차 등 차류에 관심을 보였으며, 동남아 바이어는 간편하게 음용할 수 있는 디저트 제품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등 현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담업체들은 이번에 참가한 해외바이어의 국가가 다양하여 해외수출시장 확대에 좋은 기회뿐만 아니라 신제품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체감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만족하였다.

금산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해외바이어 환영만찬에서 박범인 군수는 “금산군은 1,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려인삼의 종주지이자, 대한민국 인삼생산량의 70% 이상이 거래되는 유통의 중심지로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이 융합되는 세계 최고의 인삼 산업 인프라를 갖춰, 고품질의 인삼과 제품생산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하고 있다”며, 한국인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 금산인삼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그 가치를 세계인과 공유하고 싶 다며 바이어를 환영했다.



금산군의회 심정수 의장은 “농민의 열정과 정성으로 재배되어 약효가 세계최고로 입증된 금산인삼은 세계인의 건강식품으로 자리하고 있다”며 금산인삼 제품의 품질과 맛을 직접 느껴보고 함께 세계시장에 진출하자고 축사를 전했다.

박범인 군수는 수출기업과 바이어 수출상담이 진행되는 현장을 찾아 수출기업을 응원하기도 했으며, 환영만찬장에서 바이어 테이블을 모두 돌며 금산을 찾아준

바이어들과 일일이 악수와 함께 사진을 찍으며 금산인삼 우수성을 적극 홍보했다.

금산군은 2021년 인산류 제품을 26개국에 2천650만불을 수출해 전국 수출점유율 10%를 기록했다.

‘40년의 정성 피어나는 생명의 꽃’을 주제로 개최되는 40회 금산인삼축제는 9월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금산인삼관 광장 및 인삼약초거리 일원에서 개최했다.

[홍보마케팅팀]

# 금산인삼 사고 상품권 받으세요

## - 수삼 및 인삼제품 구입 금액 별 최대 2만원 지급 -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인삼구매상품권지급” 사업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10월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달간 인삼구매상품권 지급사업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번 행사는 수삼과 인삼제품(백삼, 홍삼, 태극삼, 정과, 절편, 홍삼액, 홍삼농축액, 홍삼스틱, 홍삼차) 구입 금액에 따라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5000원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1만원 △20만원 이상 2만원을 금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행사장소는 금산군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 등록된 수삼센터, 수삼시장, 수삼랜드, 약령시장, 국제인삼시장, 인삼쇼핑센터, 금산약초도매시장 등 7개다

진흥원은 이번 행사의 부당참여 사례를 방지하고자 1인당 참여 가능 횟수를 1주일에 1회로 제한해 운영한다.

지난해 인삼소비촉진 행사와 상반기 상품권 지급행사 경험을 바탕으로 하반기 행사에 나선다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방문객 불편이 없도록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기업지원팀]

2022년  
**금산인삼구매**  
 상품권 지급 행사

**최대**

**2만원**



**행사기간** 10.21(금) ~ 예산 소진시까지

**행사장소 (지급처)** 금산인삼약초시장 7개소

**교환시간** 오전 9시~ 오후 5시  
 (동절기내 단축운영)

## 상품권 지급행사 안내

금산에서 수삼 및 인삼제품 구매시  
**금산사랑상품권** 지급

**행사기간** 10.21(금) ~ 예산 소진시까지

**행사장소 (지급처)** 금산수삼센터, 금산수삼시장, 농협수삼랜드, 금산인삼약령시장, 금산국제인삼시장, 금산인삼쇼피센터, 금산약초도매시장

**지급대상** 금산내방객중 인삼약초시장에서 수삼 및 인·홍삼제품 구매한 고객

**교환시간** 오전 9시~ 오후 5시  
 (동절기내 단축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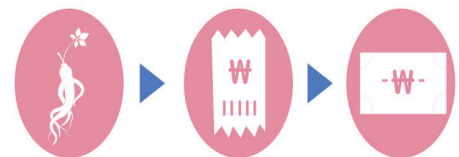
**대상품목** 수삼, 백삼, 홍삼, 태극삼, 정과, 절편, 홍삼액, 홍삼농축액, 홍삼스틱, 홍삼차

**지급액**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구매시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 구매시	20만원 이상~ 구매시
금산사랑 상품권	금산사랑 상품권	금산사랑 상품권
<b>5천원</b>	<b>1만원</b>	<b>2만원</b>

-상품권 지급 시 **1인 한도금액(주1회/최대2만원)**

**참여방법**



행사기간 내  
 금산을 방문하여  
 수삼 및 인삼제품 구매

신용카드(현금)  
 영수증을 지급처 제출  
 ※ 구입상품 확인

구매금액별  
 금산사랑상품권  
 수령



# 충남도의회, 금산 인삼약초산업 경쟁력 강화 해법 논의 - 김복만 의원 요청 의정토론회 개최...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



충남도의회는 21일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금산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복만 의원(금산2·국민의힘)의 요청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개된 금산인삼축제를 기점으로 금산인삼만이 가진 대내외적인 경쟁력을 기반으로 정부와 충남도 정책을 비롯 상품개발, 유통, 관광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삼약초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활성화 방안을 찾자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김 의원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고, 김현호 전 충남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 소장이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박범인 금산군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서 김현호 소장은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삼 생산기술의 확충과 유통가공 기술의 활성화, 소비 확대 및 수출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제도 및 기반정비, 인삼 재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충남도의회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김 의원은 “현재 금산인삼의 현주소를 보

면 코로나19와 여파와 가격하락 및 재고 증가, 다른 건강제품과의 경쟁 심화로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고있다”며 의정토론회 개최이유를 설명했다.

정관장 에브리타임과 어린이용 홍삼 제품인 흥이장군 등 인삼 전문제품을 개발한 대동고려삼(주) 전병선 기술연구소장은 “인삼 및 홍삼제품이 국내외 시장에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기능성, 기호성, 품질력, 안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며 “다양한 개발을 통해 소비자 입맛에 친화적인 제품개발하여 글로벌 건강식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산축제관광재단 남근우 축제팀장은 “그동안의 금산인삼축제는 올드하다는 선입견을 지울 수 없다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영상 콘텐츠나 온라인 SNS에 대한 관심이 증폭된 만큼 젊은층을 공략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을 게을리하면 안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의정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금산인삼이 한국인삼을 대표하여 세계적인 농특산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충남도의회]

# 금산군, 금산인삼 GAP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11월 GAP KOREA 농업인 전국대회 행사 개최 추진



금산군은 금산인삼 안전성 확보 및 관내 인삼약초 산업 발전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대한민국 GAP연합회와 공동으로 금산인삼 GAP활성화사업 추진 위원회를 발대했다.

발대식에서 박범인 금산군수는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 인삼의 안전성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금산인삼 GAP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가 GAP 인삼 생산자 육성 및 참여 공감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금산인삼 GAP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는 (사)대한민국 GAP연합회 정덕화 회장을 위원장으로 농촌진흥청, 대전소비자공익네트워크, 인삼관련 기관·단체, 총 17명의 추진위원으로 구성됐다.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농산물의 농약, 중금속, 유해생물 등 식품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유해요소들을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관리하고 주어진 조건을 충족한 농산물에 인증을 부여한다.

군은 우수농산물 공감대 형성과 금산인삼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글로벌 팬데믹 확산과 경제침체로 인한 인삼소비위축 및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환경 변화 등으로 금산인삼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GAP 인증제도의 적극적 활용과 미등록 약제 사용 지양, 예정지 관리 중 뿌리썩음병 방제와 병해충 발생 억제, 포장 관리의 중요성 등 관리체계의 유용성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금산인삼의 소비 및 수출부문에서 가격, 브랜드 등 소비자니즈에 맞는 전략과 수출국가별 분석을 통해 시책 발굴 등 소비위축을 타개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인삼실명제와 인삼경작 신고의무화 도입으로 농가의 경영효율성 개선과 소비자 신뢰도회복을 통해 고품질 인삼 생산과 인삼 수급 안정성이 필요하다"며 "군이 GAP제도 발전의 선두에 서는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GAP인삼 생산 공감대 형성을 위해 11월 금산다락원에서 GAP KOREA 농업인 전국대회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산군]

# 금산인삼, 세계주요농업유산 금산인삼을 브랜드할 때 금산인삼과 고려인삼 차별화로 글로벌 브랜드 육성 인삼공판시스템 도입으로 거래 투명화



금산군이 금산인삼산업의 소비활성화와 글로벌시장 비즈니스 역량 강화에 나섰다.

지난 5일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은 지역인삼재배농가 및 기업인, 전문연구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시대 금산인삼산업의 대응 전략’을 테마로 제21회 금산인삼세계화심포지엄을 개최 했다.

학술발표에 나선 김성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장은 ‘소비 및 유통통계로 찾는 인삼산업의 발전 방향’ 주제로 인삼 생산에서 농가의 경영효율성 개선과 소비자 신뢰도회복을 통해 고품질 인삼 생산과 수급 안정을 유도하고, 인삼농협을 중심으로 공판시스템을 도입해 거래 투명화 및 대표가격을 제공해 안정적인 원료삼 분배와 가공업체의 영세성과 취약한 인프라를 현대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 및 수출부문에서 가격, 브랜드 등 소비자니즈에 맞는 전략과 수출국가별 분석을 통해 차별화 전략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시책 발굴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선의 충남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 팀장은 ‘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프리 인삼재배기술’ 주제로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인삼육종 방안을 제시하며, 토양 및 잔류농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GAP 인증제도의 적극적 활용과 미등록 약제 사용 지양 등을 제시 했다.

이어 엄용수 (주)투와이엠 대표는 ‘MZ세대 맞춤형 인홍삼

제품기획 및 사업화 방향’을 주제로 소비시장의 셀럽으로 떠오르는 MZ세대의 소비트렌드로 알아보는 성공적인 마케팅 공략법으로 제품의 구매욕구를 불러일으키게 할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제품기획과 소비자 피드백을 반영해 제품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학열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중요농업문화유산 이미지 브랜드 전략’을 주제로 전 세계 유일 ‘금산인삼농업’의 홍보가치와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고려인삼’과는 차별화된 전통과 정통성을 확보한 글로벌 브랜드로의 육성을 강조했다.

김영수 진흥원장은 "지난 몇 년간 유행한 코로나 팬데믹이 둔화되고, 이어지는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목전에 둔 금산인삼산업의 소비활성화와 글로벌시장에서의 비즈니스 역량 제고를 위해 금산군과 의회 등 전력을 다해 재부흥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평했다.

앞서 박범인 군수는 환영사에서 "글로벌 팬데믹 확산과 경제침체로 인한 인삼소비위축 및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환경 급변 등 금산인삼산업 위기를 한마음으로 타개하자"며 "지금 이 위기로부터 박차고 도약할 수 있는 시의적절하고 귀중한 시간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인삼산업의 환경과 미래가 결정되는 기회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행사의 의미와 역할을 강조했다. [금산군]

# 박범인 금산군수 86개 공약 확정..대전과 트램 연결 제외 취임 100일 맞아 5대 중점전략 86개 공약사업 확정 발표 인수위에서 백서 통해 제시했던 116개보다 30개 가량 축소 박 군수 "과감한 도전통해 희망과 행복을 키울 수 있다" 자신감

민선8기 금산군정을 이끌 책임자로 선출된 박범인 군수의 공약사업이 최종 확정됐다. 총 86건이다. 이는 인수위원회에서 제안했던 116개보다 30개가 줄어든 것으로 공약이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폭 손질된 것으로 보인다.

12일 금산군에 따르면 박 군수는 지난 8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금산인삼축제장 내 금산인삼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공약사업이 담긴 희망비전을 발표했다.

박 군수는 "금산군수라는 사명을 주신 후 100일이 지났다"며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라는 진취적인 비전 아래 출범한 민선8기 금산군정 100일은 세계 속의 빛나는 금산으로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했다"고 말했다.

박 군수가 공개한 희망비전은 지방선거 당시 공약했던 5대 공약과 금산군수직인수위원회에서 발굴해 제안한 공약과제를 기반으로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공약은 5개 분야별로 부서 공약사항 검토와 공약토론회를 거쳐 86개 공약사업이 최종 확정됐다.

확정된 민선8기 군정비전을 보면 비전은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로 결정됐다. '과감한 도전, 커가는 행복'을 목표로 △찾아오는 매력도시 △중흥하는 경제도시 △건강힐링 행복도시 △세계속이 인삼수도 △신뢰받는 희망군정이라는 5개 중점 전략도 마련했다.

5대 중점전략에 따라 각 전략별 세부 공약사업도 마련했는데 △사람이 찾아오는 매력도시 만들기(25건) △성장하고 다시 뛰는 경제도시 조성(20건) △건강하고 즐거운 삶으로 커가는 행복(23건) △과감한 도전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금산(9건) △군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희망군정(9건) 등 86건으로 축약됐다.

인수위 과정에서 제시됐던 금산~대전간 트램 연결과 대규모 친환경 우량기업 유치, 지역공동체 의식 고취 등 일부 사업은 없어지거나 다른 사업과 합해졌다. 즉 박 군수 임기동안 공약이행이 가능한 사업들로만 추려진 셈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도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금산군은 86개 공약사업에 대해 추가로 내부 논의를 거쳐 유사한 사업을 합하는 등 추린 뒤 예산 확보 계획까지 포함된 공약이행 로드맵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산군 관계자는 "합칠 것은 합치고 장기적으로 해야 할 사업은 제외했다"면서 "앞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더 축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민선7기는 군정의 신뢰를 잃고 행정경험이 없는 난맥을 보여준 만큼 민선7기를 타산지석 삼아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며 "우리는 과감한 도전을 통해 희망과 행복을 키울 수 있다. 인화를 바탕으로 700여 공직자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나타냈다.

# 금산군, 제40회 금산인삼축제 인삼왕 선발 10개 읍면에서 110점 출품



금산군(군수 박범인)은 제40회 금산인삼축제 첫날인 9월 30일 금산인삼관 1층 중앙홀에서 올해 수확한 인삼 중 우수한 품질의 인삼을 선별하는 인삼왕 선발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박범인 금산군수, 금산군의회 심정수 의장, 금산축제관광재단 김동인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10개 읍면에서 총 110점이 출품돼 금산인삼왕, 인삼대왕, 미스터인삼, 미스인삼, 특이모형인삼 등 5개 부문에 송, 죽, 매 3점씩 총 15점이 선발돼 총 275만 원의 시상금을 금산사랑상품권으로 수여했다.

수상자는 금산인삼왕에 송-남일면 이규천, 죽-부리면 길배열, 매-부리면 길명섭 농가와 인삼대왕에 송-남일면 이강봉, 죽-부리면 길명섭, 매-진산면 박근춘 농가가

선정됐다.

이어서 미스터인삼에 송-남일면 정해진, 죽-군북면 전해결, 매-금성면 박세필 농가와 미스인삼에 송-남일면 김명숙, 죽-남일면 곽현진, 매-금산읍 김현운 농가가 뽑혔다.

특이모형인삼에는 송-남일면 신상교, 죽-부리면 길명섭, 매-부리면 길명섭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금산군은 올해 선발된 인삼왕 수상작을 금산인삼축제 기간 동안 금산인삼관 1층에 전시할 예정이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인삼은 오랜기간 인고의 시간을 거쳐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며 “이번 인삼왕 선발대회에 입상한 인삼을 재배하신 농가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금산군]

## 금산인삼, 세계 최대 파리국제식품박람회 참가

4년 만에 열린 <Sial Paris 2022>.... 194개국 310,000명 방문  
인삼제품류 활용한 ‘카나페, 케이크, 에이드’ 등 다채로운 시연시식 행사  
해외 식품업체와 공동 제품 개발 협력.... 해외 진출의 새로운 가능성 열려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이사장 박범인)은 지난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2022 프랑스 파리국제식품박람회(Sial Paris 2022)”에 관내 기업 4개소와 함께 참가하여 약 108만불의 수출상담 성과를 맺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 만에 개최된 파리국제식품박람회(Sial Paris)는 독일 쾰른국제식품박람회(ANUGA), 이탈리아 밀라노국제식품박람회(Tutto Food)와 함께 세계 3대 식품박람회로 알려져 있다.

파리국제식품박람회(Sial Paris 2022)에서는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튀르키예,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알제리, 칠레, 튀니지, 파키스탄 등에서 방문한 바이어가 금산 인·홍삼 제품에 관심을 보이며, 총 69건의 수출 상담이 진행되었다.

이번 전시 참가로 인해 ▲총 상담액 108만불 ▲금홍 관련 제품 수출계약 MOU 2건(25만불) ▲현장 계약 4만불 ▲계약진행 62만불 등의 성과가 창출되었다.

‘금산인삼홍보관’은 Alternative Food(대체식품) 및 Organic(친환경), Vegan(비건) 테마의 7홀(Hall 7)에 마련되었으며, 올해 파리국제식품박람회에 참가한 업체는 금산몰(아침마당), 금산인삼협동조합, 금산흑삼, 천년홍삼 등 4개 기업이다. 진흥원에서는 공동홍보관을 운영하며, 금산 인삼·홍삼·흑삼으로 제조한 농축액, 정과, 절편, 스틱 등 다양한 제품을 바이어와 참관객에게 소개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서 금산인삼은 ‘K-Healthy Lifestyle, Geumsan Ginseng’이라는 슬로건으로 현지인에게 금산인삼 제품의 우수성을 알렸다. 이와 함께 금산



인삼제품류 활용한 시연시식(홍삼차, 홍삼요거트, 진생 카나페, 스위트진생케이크, 진생에이드) 행사를 통해 ‘건강함, 미식’ 등의 금산인삼 이미지를 전달했다.

진생카나페를 맛본 한 독일 참관객은 “한국 인삼의 우수성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접해볼 수 있다는 것은 처음 알게 되었다”며, “제가 사는 곳에서도 금산의 홍삼제품을 자주 접했으면 좋겠고, 특히 디저트로의 활용이 기대되는 식품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 참가한 금산물(아침마당)은 인도, 아랍에미레이트 등 다른 국가관 내 차(Tea)를 생산하는 기업을 만나 금산의 인·홍삼 제품을 소개하면서 ‘공동 제품 개발’을 제안받기도 했다.

한 참가업체 대표자는 “세계 3대 식품박람회에 금산인삼이 세계 식품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바이어들과 참관객들이 금산인삼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것에 자부심이 느껴진다”며, “거대한 전시 규모나 세계 3대라는 이름에 걸맞은 박람회에 참가하고, 또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참가업체와 더불어 금산인삼에 큰 발전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금산홍보관을 찾은 한국 국가관 담당 정부부처 관계자는 “8월에 마련된 한국관과는 차별되는 금산인삼만의 강렬한 인상을 엿볼 수 있었다”며, “금산인삼의 전통성을 기반으로 친환경, 비건과 같은 식품 트렌드, 새로운 식문화 등이 한데 어우러져 세계 식품시장 선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흥원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관내 업체의 유럽 수출을 돕고 유통다변화를 위해 프랑스 유통시장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였으며, 유럽국가 친환경 제품 인증인 ‘BIO’를 비롯한 ‘Vegan’ 인증 지원을 위한 사업 구상 및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 중이다.

진흥원은 금산인삼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잠재시장 개척 홍보를 위해 오는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UAE 두바이 ISM Middle East 전시회에 참가한다. 올해 추진되는 금산군과 진흥원의 금산인삼 해외마케팅 지원은 금산인삼의 세계화를 위해 관내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과 수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홍보마케팅팀 박종복]

# 고려인삼의 세계문화유산으로서 가치 농촌진흥청 인삼특작부장 김경미

## 한국 인삼, 오래전부터 최고 가치 평가 서양·중국서 재배되는 삼과는 달라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적극 지원을

코로나19의 끝이 보이는 것일까? 야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의무는 해제되었다. 물론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곧 마스크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긴 시간 온 세계가 코로나19와 동행할 줄은 상상도 못 했다. 그 사이 변종 바이러스도 많이 출현했고 예방 백신 접종은 4차까지 권장되고 있다. 그럼에도 주변에서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비율은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걸리지 않는 것일까? 의학 전문가들은 면역력에 대한 차이로 그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인삼은 그 대표적인 식품이자 약용작물이다. 실제로 경북에서는 2020년에 인삼축제를 비대면으로 개최했음에도 인삼판매액이 8배나 늘었다고 한다(경북신문, 2021.1.18.).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서 홍삼의 기능에 대한 면역력 증강, 피로 개선, 혈액 흐름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 여성 갱년기 개선 총 6가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홍삼은 땅에서 캐낸 원형 상태의 삼(수삼)을 수증기로 찐 다음 건조시킨 담홍갈색의 인삼을 말한다. 인삼은 수삼, 백삼, 홍삼 등 모든 종류의 삼을 총칭하는 말이다. 인삼에는 에너지 생성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신진대사를 돕는다. 인삼에는 진세노사이드라고 하는 사포닌 성분이 있는데, 특히 우리 생활에서 가장 흔한 질병 중 하나인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성을 키워준다. 그러므로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신종플루, 코로나19 등)에 유용하다.

인삼은 아주 오래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귀한 약재로 거래되었고, 특히 한국의 인삼은 고려인삼으로 알려지면서 최고의 가치로 평가받았다. 아울러, 그 시장의 흐름을 따라 문화적 교류와 정보교환의 장이 되기도 하였다. 한반도에서는 오래전부터 인삼이 발견되고 이용되었지만, 우리 문자가 없던 시대 인삼을 우리 식으로 표기할 수 없었다.

다만, 기록으로 남아있는 재배법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약 400여 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인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사실도 역사적 가치가 높다.

국부창출 측면에서는 인삼을 통한 부의 축적은 국가재정을 키웠고 군사력을 키우거나 독립자금을 조달하는 역할도 했고 문학과 민요 등에서도 나타난다. 아울러 유럽으로 뻗어나간 인삼은 세계적인 문화교류와 의학, 약학의 발전을 도왔다. 그리고 근대사회 말기에는 미국으로 건너간 한인들에 의해 북미대륙에도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인삼농장을 경영하기 위한 인삼을 재배하는 기술도 전수하였다. 그 과정에서 고려인삼의 가치는 인삼재배자로서, 판매자로서뿐만 아니라 종주국으로서 기술과 품질에 대한 신뢰감과 자존심이었다.

식물 분류 학명 *Panax ginseng* C.A Meyer는 고려인삼을 지칭하며, 서양이나 중국에서 재배되는 삼과는 구분되는 우리 고유의 귀중한 식물자원이다. 인삼에 대한 종주국 논란이 거세지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사)한국인삼협회는 2021년부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인삼 등재를 추진 중이다. 2022년 9월26일 '인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위원회'발대식이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한국 인삼의 생물학적인 독자성, 고유성,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지원한다.

문화유산에 등재하려면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첫째는 공동체나 집단, 개인 등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 표상, 표현, 지식, 기능 및 관련된 도구, 물품, 공예품 및 문화공간 등이 있는가이다. 둘째는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대화 촉진에 기여함으로써 문화다양성을 반영하고 인류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는가이다. 셋째는 효과적인 보호조치가 존재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가. 넷째는 관련 공동체, 단체 또는 개인의 광범위한 참여와 명시적 동의. 다섯째는 대표 목록 등재를 선정하는 문화유산이 당사국(해당 국가)의 목록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2월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함께 살아온 한국 '인삼'이 국민의 관심 속에서 세계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

[한국농어민신문]



# 스위스가 한국보다 더 많은 인삼을 수출하는 비결



1686년 9월 태국 왕국 외교사절단이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방문한다. 이들은 루이 14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선물을 준비했는데 조선에서 가져간 인삼이었다.

인삼은 17세기부터 동서양을 잇는 교역에서 매우 중요한 상품이었다.

뿌리 모양이 사람과 비슷한 인삼은 예로부터 그 효능과 희소성으로 말미암아 민간에게 불로초(不老草) 또는 만병초(萬病草)로 여겨졌으며, 귀신 같은 효험이 있다고 하여 신초(神草)로 불리기도 한다.

고려인삼의 학명 Panax Ginseng의 Panax는 그리스어로 Pan은 '모든'이란 뜻이며 Axos는 '치료하다'라는 뜻으로써 '모든 병을 치료한다'라는 만병통치의 의미가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독창적인 농업시스템, 생물 다양성과 전통 농업 지식 등을 보전하기 위해 '세계중요 농업유산제도'를 2002년에 도입했다.

국내에서는 금산인삼이 4번째로 세계농업유산에 등재되었으며 인삼으로는 세계 최초이다.

조상들이 외교 수단으로 여길 만큼 귀한 존재였고, 세계 농업유산에까지 등재된 1,500년 역사의 인삼이 현재 소비 위축과 재고 증가라는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나라 연간 인삼 생산액이 대략 8,000억 원 정도인데 누적 재고는 2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앞으로 재고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인삼에 대한 선호도가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위기 속에서 경제적으로 움츠러든 사람들은 기호품 소비부터 줄였고, 큰 소비층이었던

민승규 국립한경대 석좌교수

외국인들의 관광 수요가 급감하여 치명상을 입었다.

인삼 특유의 쓴맛에 대한 거부감으로 젊은 층이 인삼을 소비하지 않는 것도 인삼산업의 우려이다.

하루속히 맛과 영양을 다 잡을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야 하는 이유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인삼산업의 경쟁력 확보다. 인삼 자체 제품으로 승부를 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첨단기술을 접목한 혁신적인 인삼-테크 기업이 나와야 한다. 한 예로 인삼 한 뿌리 생산되지 않는 스위스의 '파마톤'이라는 기업에서는 사포닌 함량을 표준화해 G115라는 이름으로 세계 특허를 취득한 뒤 '진사나(Ginsana)'라는 제품으로 연간 3억 달러어치를 수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삼 수출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우리도 세계 최고의 효능이 있는 고려인삼의 유효성분을 발굴하고 표준화하여 기능성 식품이나 천연 의약품을 만드는 데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주시는 9월 30일부터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를 개최하고, 같은 날 충남 금산군에서는 제40회 '금산인삼축제'가 개최된다.

두 축제 모두 인삼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다.

박범인 금산군수의 야심 찬 도전도 주목을 받는다. 그는 '금산인삼조합' 설립 100주년을 맞아 '세계인삼수도선포식'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한류의 흐름을 타고 인삼을 이용한 K푸드와 K뷰티를 소개하려 한다. 또한, 젊은 층 고객을 유입하기 위해 대체 불가능토큰(NFT) 발행과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한 인삼산업의 새로운 생태계를 구상하는 그의 행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1,500년 인삼 부활 프로젝트'를 통해 관계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미봉책이 아닌 근본 대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

고려인삼이 비상(非常)이다! 비상(飛上)을 준비하자!

[한국일보]

#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폐막...K-인삼 중심에 '우뚛' 입장객 86만명, 해외수출협약 3천150만 달러...풍기인삼 명성 재확인



K-인삼의 중심을 알리는 영주 풍기인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인삼, 세계를 품고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지난달 30일부터 24일간 열린 ‘2022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가 풍기인삼의 효능을 알리고 대한민국 인삼산업의 미래 가능성을 확인하는 매개의 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으며 23일 막을 내렸다.

풍기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는 23일 오후 3시부터 엑스포장 주 무대에서 주요 기관장과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천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4일간의 기록이 담긴 영상 상영과 엑스포를 빛낸 관계자들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며 폐막식을 가졌다.

인삼 종주국, 그 가운데서도 고려인삼 최초의 시배지인 영주 풍기에서 열린 이번 엑스포가 지역 농업,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면서 영주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시와 조직위원회는 엑스포 기간 동안 총 112만여 명(연계행사장 포함)이 영주시와 행사장을 찾아 방문객 소비지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액 1천736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793억 원, 취업유발인원이 2천272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풍기인삼문화공원인 주 행사장에만 86만여 명(외국인 1만여 명 포함), 연계행사가 개최된 인삼시장과 선비세상, 국립산림치유원 등에는 26만여 명의 인파가 방문하면서, 영주 지역 역사상 최초로 열린 국제 행사를 성공시켰다는 호평을 얻으며 24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외 바이어 초청을 통해 미국, 호주를 비롯한 9개국을 대상으로 3천150만 달러의 수출협약과 1천878만 달러의 수출상담실적을 거둬 목표 대비 수출협약 630%, 수출 상담실적 189%를 달성해 당초 목표를 크게 웃도는 성과를 거뒀다.

엑스포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최적화하고 행사장 내 인삼판매장 마련과 ‘Everyday Festival’을 주제로 한 ‘영주슈퍼콘서트’, ‘심(蔘)쿵한 콘서트’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개최하는 등 관람객 유인책을 마련한 것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을 행사장으로 활용해 포토존, 휴게존과 쉼터를 조성하여 관람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엑스포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사전 입장권 판매 수익은 10억여 원, 20만여 매를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현장 판매 입장권 수익과 시설임대수익, 후원사업 등 총 24억여 원의 수익을 올렸다.

엑스포 행사장에 마련된 판매장을 통한 수삼판매는 15억여 원으로 지역 인삼시장 판매량을 합하면 48억여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인삼가공품, 건강기능식품 등 46개의 인삼 관련 업체가 입점한 인삼교역관에서는 라이브커머스, 현장컨설팅 등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며 행사 기간 내내 관람객들로 가득 채웠다.

또한, 총 6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인삼소비 촉진 할 인쿠폰사업을 행사기간 동안 진행하여 인삼판매 촉진과 인삼 수확기 가격안정을 도모해 인삼재배농가를 돕고, 우수한 풍기인삼을 관람객들과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입장권 구입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 지역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통해 총 8억 5천만여 원의 영주사랑상품권이 발행되면서 행사장은 물론, 전체 영주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톡톡히 기여했다.

문화 분야에도 큰 성과를 얻었다. 침체된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지역의 주요 관광지인 부석사, 소수서원, 선비세상, 국립산림치유원 등 영주시와 인근 시군 관광지를 연계한 할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방문을 유도해 지역 상생발전에



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보이는 성과도 빛나지만 지역 역사상 최초의 행사인 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인삼종주국의 인삼 첫 시배지로서 자존심을 지키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킨 점은 무엇보다 높이 평가받고 있다.

고려인삼의 최초 시배지인 경북 영주시 풍기읍 일원에서 열린 이번 엑스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위축됐던 인삼 시장을 활성화하고 인삼을 식품으로서만이 아니라 미용, 의료, 헬스, 바이오 등 여러 산업과 연계해 신규 시장을 창출하는 등 인삼의 저변을 넓히고, 인삼 제품의 세계화를 도모했다는 평가를 얻었다.

또한, 전국 인삼농협이 교역관에 참여하고, 인삼 농가가 주축이 된 '농협인삼의 날'을 개최해 풍기인삼과 고려인삼 홍보의 장을 마련하는 등 다른 나라에서 재배되는 인삼보다 탁월한 효능을 가진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영주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부석사와 소수서원

을 비롯해 지역 관광자원과 엑스포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도록 엑스포 개최 기간 동안 세계피트니스선수권대회, 우수시장박람회 등 각종 전국단위 행사를 유치하고, 주한 외교관 초청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하는 등 경북을 뛰어넘는 K-문화 확산을 통한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고 함께하는 엑스포를 만들었다.

특히 영주 지역만의 행사가 아니라, 모두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경북 23개 시군의날 행사와 국내의 16개 인삼 주산지의 권역별 홍보부스를 운영해 고려인삼에 대한 우수성을 알렸으며, 농식품부, (사)고려인삼협회, 경상북도 인삼미래관을 운영하는 등 상생엑스포를 실현해 국내 인삼산업의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

성공적으로 엑스포를 이끌어 낸 영주시는 엑스포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풍기인삼의 세계 경쟁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고려인삼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한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나갈 방침이다.

[국제뉴스]

# 한국인삼협회 '2022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인삼홍보관' 성공적 운영



한국인삼협회가 ‘2022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인삼홍보관’의 주관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인삼협회가 농림축산식품부의 후원을 받아 운영한 2022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인삼홍보관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3일(일)까지 풍기인삼문화팝업공원 일원에서 진행됐다. 인삼홍보관 현판식을 진행한 첫날부터 행사 종료일까지 ‘진생호텔’이라는 콘셉트에 맞춰 인삼의 문화, 효능, 역사 등을 호텔이라는 공간 콘셉트와 접목하여 다양한 전시, 체험, 휴식을 제공했다.

협회에서는 엑스포 기간에 맞추어 인삼 산업 관련 다각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인삼 세미나도 진행했다. 이달 18일 국립삼림치유원 다스림홀에서 열린 세미나는 인삼 산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인삼 연작장애 경감기술,

인삼 소비트렌드, 인삼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강연 형식으로 공유했다.

반상배 한국인삼협회장은 “고려인삼의 다양한 면모를 호텔과 접목시킨 인삼홍보관은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 체험거리를 선사했다”며, “앞으로도 이번 엑스포와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022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는 9월 30일부터 10월 23일까지 24일간 개최되어 인삼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 체험, 공연, 요리 등을 선보였다. 인삼홍보관에서는 전시 공간 외에도 사전 신청자에 한해 ‘인삼 비밀의 방’ 입장이 가능했으며, 상시로 인삼 족욕, 인삼 게임, 인삼 타로점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전국에서 생산되는 수삼 및 인삼 제품들을 판매했다.

# [탐방] 금산인삼농협 인삼 쓴맛 줄이고 효능 유지 가공품 개발... 제품 다각화 박차



강상묵 금산인삼농협 조합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직원들과 함께 홍삼으로 만든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인삼 효능 모르는 사람 없고 세상 어디 내놔도 ‘코리아 진생, 넘버 원((Korea ginseng, Number one)’이라며 엄지 손가락을 세웁니다. 이렇게 세계인이 좋아하는 우리 인삼인데 어쩌다 이렇게 고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3500명의 생산 농가를 대표하는 조합장으로서 당연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의 강력한 인삼 부양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만 모든 게 만만치가 않네요.”

강상묵 금산인삼농협 조합장은 우리 인삼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최근 처한 어려움을 이같이 밝혔다.

2019년 3월 조합장으로 취임한 강 조합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백제금산인삼농협’ 경영개선에 착수

했다. 우선 조합의 재정적자를 흑자경영으로 바꿔놓았고 조합명칭도 금산인삼농협으로 재통일해 사용하기로 했다.

금산인삼농협은 2013년 가을에 부여의 백제인삼농협과 금산의 금산인삼농협 2곳을 합병해 ‘백제부여인삼농협’이라는 명칭을 써왔는데 지난 5월에 금산인삼농협으로 통일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개정 허가를 얻었다. 아직은 백제금산인삼으로 혼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명칭을 통일해 일원화 한다는 방침이다.

강 조합장은 40대 초반에 조합장이 된 젊은(1975년



생) 경영인이다. 금산에서 쌓은 인삼농사 경력과 판매 경험을 살려 다부진 경영스타일을 보이고 있다. 합병으로 조합원들의 사기는 처져 있고 때마침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인삼 유통과 수출이 지지부진해졌다. 유네스코 농업 유산 등재 품목의 아성에 걸맞지 않게 인삼이 고전하는 품목으로 전락하고 조합경영도 부실화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강 조합장은 신제품 개발과 유통 확대, 끈질긴 농정활동 등으로 지난해 결산에서 당기순이익 7억 5000만 원을 달성하며 이월 결산을 완전히 정리했다.

“인삼 판매 확대와 재고 해소가 제1번 현안이었습니다. 농특산물이라도 팔리지 않고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가공유통을 혁신하고 신용사업도 건전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삼산업종합계획(2022~2026년)’이 나와서 한시름 덜었고 코로나19 상황이 바뀌니 더 노력해 기회를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현재 2000톤 이상의 인삼 재고 정리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다.

“인삼산업은 정부 차원에서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작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년 작물로 5년이 걸려야 상품 가치를 내는 특성 등을 감안해 홍보, 마케팅, 수출 확대를 통해 인삼 시장을 키워줘야 합니다.”

강 조합장은 이에 대응해 인삼 농가와 조합에서도 인삼의 쓴맛을 줄이고 효능은 유지할 수 있는 가공품 개발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우리 인삼 시장도 많은 변화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어요. 저는 맥주에 쌀을 가미해 쌀 소비량에 많은 도움을 주듯 인삼도 각 식품기업이 첨가제로 사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국가와 기업에 큰 이득을 가져왔지만 결국 농업인은 자기 밥그릇은 놓치는 형국이 됐습니다. 농업의 희생으로 득을 본 기업이야말로 직원들에게 농작물 소비를 통한 상생에 협조하라고도 당부하고 싶습니다.”

강 조합장은 농업인과 기업,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금산농협은 여성을 위한 석류 홍삼과 홍삼 블루베리, 6년근 홍삼절편, 삼지원 고려홍삼 양갱, 홍삼비누, 홍삼 캡슐, 어린이용 홍삼 등 제품 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조합원들의 지도 교육사업을 강화, 고품질 인삼 생산을 위한 조합원 교육, 농약 안전사용 등 주인의 식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삼 소독을 혼자서도 작업할 수 있게 농약 호스 멜빵을 조합원에게 지급기도 했다.

금산농협 경제사업은 연간 248억 원 규모다. 인삼 판매가 70억 원, 가공판매 40억 원이다. 본 점은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에 있고 2개 지점과 유통 사업부 및 인삼가공공장과 3개의 사업소를 보유하고 있다.

# 이만기가 안내하는 '동네 한 바퀴' 올차다 인삼고을 - 충남 금산군 500년 고려 인삼의 본고장 충남 금산 충남 금산 가볼만한곳, 맛집 소개 10월 15일 저녁 7시 10분 KBS1 방송

수년간의 정성으로 피어나는 생명의 꽃, 인삼처럼 피땀 흘려 값진 삶을 일구는 강인한 이웃들을 만나러, KBS1 '동네 한 바퀴' 191번째 여정은 충남 금산으로 떠난다.

## 덕천리 어머니들의 인삼 캐는 날



1,500여 년 고려인삼의 본고장, 금산. 과거 개성과 함께 인삼 2대 산지로, 유구한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다. 덕천리의 인삼 수확하는 날. 애지중지 키운 5년근 인삼이 약 1,800일의 기다림 끝에 세상 구경에 나왔는데. 검정 차광막을 친 인삼밭에는 이른 아침부터 트랙터가 지나가고 베테랑 어머니들이 바지런히 인삼 손질에 들어간다. 짝짝한 매력에 빠져 산 지도 수십 년째. 어머니들에겐 이곳, 인삼밭이 곧 황금밭. 삼삼한 재미와 수확의 기쁨을 동시에 맛보며, 올차게 자란 인삼 덕에 행복하다는 덕천리 어머니들을 만나본다.



추부 깻잎떡으로 인생 2막을 연 귀농 부부

금산의 또 다른 명물, 추부 깻잎. 다른 깻잎에 비해 잎이 크고 쓴맛이 적으며 저장성이 뛰어난 추부 깻잎은 전국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한다. 깻잎 하우스가 지천인 동네를 걷다, 깻잎 쪽지를 따고 있는 어머니를 만난다. 직접 키운 깻잎으로 떡을 만든다는 말에 어머니를 따라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가게 한쪽에 깻잎으로 만든 다양한 떡들이 진열되어 있다. 2년 전, 시가를 혈어 떡집을 차렸다는 아내, 손옥순 씨.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깻잎 밭을 일구다, 깻잎으로 떡을 만들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고 곧바로 귀농을 선택했다. 수십 번의 쓰디쓴 실패 끝에 지금의 깻잎떡을 만들어낸 옥순 씨. 무엇보다 그러한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건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데. 한 번 결심하면 못 말린다는 불도저 아내의 뒤를 묵묵히 지켜준 남편, 구 훈 씨. 늘 티격태격하면서도 아내를 위해 뭐든지 도와준단다. 추부 깻잎으로 향긋한 인생 2막 스토리를 펼쳐나가는 부부를 만나본다

인생의 고락 넘어 백년해로하는 오지마을 노부부



금산 동남쪽의 끝자락, '육지 속의 외딴섬'이라 불리는 오지마을이 있다. 금산과 연결된 길이 없어 전북 무주로 돌아가야만 만날 수 있는 방우리. 앞으로는 금강이 가로막고 뒤로는 산으로 틀어 막힌 작은 마을에서, 반백 년 넘

게 금실 좋게 살아가는 노부부를 만난다. 제대로 된 대중 교통도, 작물을 키울 밭도 없던 시절, 산에서 흙을 퍼 날라 논을 개간하고, 밭을 일구고, 강 건너 산 넘어 농작물을 지게로 지어다 팔아 6남매를 길렀단다. 비록 네 귀 바른 땅 한 평 얻기 힘들었던 척박한 오지마을이지만, 부부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준 고마운 마을이자, 동시에 하나뿐인 딸을 잃은 아픔을 간직한 곳이다. 부부가 이곳을 떠나지 않는 건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었던 지난날들의 추억이 있기 때문. 인생의 고락 넘어 백년해로하는 방우리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호남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대둔산 자락. 마당에서 약초를 한가득 널어 말리는 한 남자를 만난다. 대둔산 날다람쥐로 불리는 20년 차 약초꾼, 고재웅 씨. 수백 년 된 복령과 도라지, 귀한 산삼까지 희귀 약초들로 담긴 약주들이 그의 실력을 대변하는데. 약초꾼의 두 번째 직업은 쌍화차 찻집 주인. 재웅 씨가 직접 캔 귀한 약초로 쌍화차를 달이면, 아내가 그에 어울리는 다과 한 상을 준비한다.

본래 사업을 했던 재웅 씨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IMF로 부도가 나면서 삶의 의지가 꺾여 산을 찾기 시작했고, 그사이 착한 아내가 남편이 마음을 추스릴 때까지 묵묵히 생계를 책임졌단다. 선녀같이 착한 아내와 우직한 약초꾼 남편이 만든 쌈싸름한 쌍화차를 맛본다.

스타 강사의 반전 인생, 해물모듬장



한참 시장을 구경하다, 골목에서 인삼 상자를 나르는 남자를 만난다. 그가 인삼배달을 온 곳은 어머니와 아내가 운영하는 삼계탕집. 30년 전, 금산에 삼계탕집을 차렸다는 어머니. 이제는 나이가 들어 힘든 시어머니를 대신해 며느리가 그 손맛을 이어가고 있다. 착하고 부지런한 며느리가 있어 고맙고 든든하다는 어머니는 늘 며느리가 1등이라고 말한다. 며느리 다리 아플까 봐 모아 놓은 돈으로 좌식에서 입식 테이블로 바꿔주고, 가게 열쇠와 통장도 며느리에게 온전히 맡겼으며, 언제나 아들보다 며느리 편이란다. 시어머니의 사랑 듬뿍 받은 덕에 밥 하나 안칠 줄 몰랐던 며느리는 이제 어엿한 주인으로서 가게를 꾸리고 있다. 남편에게 못한 말도 시어머니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고, ‘어머니’보다 ‘엄마’라는 호칭이 더 익숙해졌다는 며느리, 영애 씨. 20여 가지 약재와 인삼을 가득 넣어 기운 펴펴 나는 삼계탕에는 서로를 생각하는 고부의 따뜻한 정도 함께 끓고 있다



다시 읍내로 들어온 동네 아들 이만기는 오래된 탁구장을 발견한다. 운영을 안 하는 듯한 낡은 외관과 달리, 그 안에서는 탁구를 하는 사람들로 후끈한 열기가 전해진다. 이곳이 주는 익숙함과 정겨움이 좋아 매일 같이 찾아오는 사람들 덕에 주인장은 30년 넘게 탁구장을 운영하고 있다. 탁구장을 나와 읍내 골목을 걷던 이만기는

대둔산 약초꾼 부부가 달인 쌍화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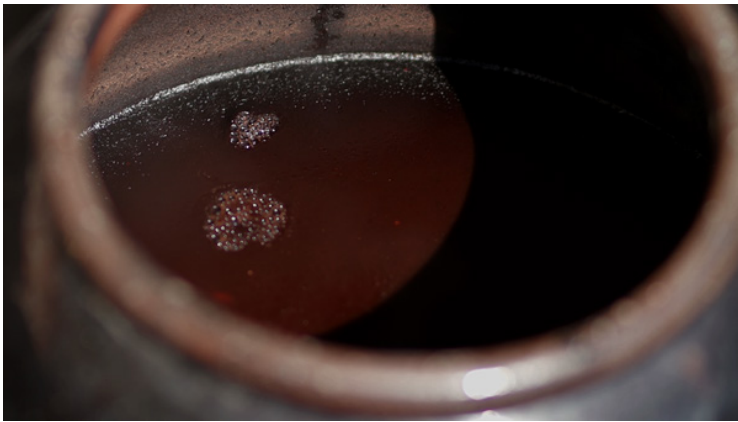
멋진 글귀가 내걸린 가게를 발견한다. 7년째 자매가 운영하는 한정식집. 동생에게 요리를 배우며 실장을 맡은 언니, 지영 씨와 사장이자 주방장인 동생, 소영 씨가 꾸려가고 있는 곳이다. 대치동 스타 강사라는 화려한 전직을 그만두고, 소영 씨가 금산에 내려온 이유는 언니 때문. 당시 아팠던 언니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덩석 가게를 차려 선물로 주었지만, 문제는 언니의 요리 실력이 아무리 해도 늘지 않았던 것. 그렇게 7년째 공부만큼이나 요리에도 열정적인 동생이 언니에게 요리 1타 강의해주며, 운영 중이다. 연고도 없는 금산에서 자리를 잡기까지 수년이 걸렸지만, 둘이 함께 고군분투하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는 자매. 음식으로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자매의 해물 모듬장 한 상을 맛본다.

게 살이 올랐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한 일이다. 지금 정성으로 달이는 어머니의 특별한 보약, 경옥고. 그 속에는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깊고 진한 사랑이 응축돼 있다.

금산농악과 함께 신명 나게 놀아보세



황소 어머니의 특별한 보약, 경옥고



스님의 밥주발인 '바리'를 닦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 '바리실' 마을. 바리실의 '실'은 과실(實)을 의미하며, 스님의 바리에 과실이 가득 담겨 부자 되라는 뜻이 있다. 그 이름처럼 예부터 인삼과 지황, 사과 등의 작물들로 풍요를 이뤘던 동네. 좁은 길 따라 언덕을 오르던 이만기는 고추를 따고 있는 노부부를 만난다. '황소처럼 일하자'라는 집안의 가훈처럼 고추뿐만 아니라 인삼, 사과 등 쉬지 않고 다양한 농사를 지어온 부부. 그런 황소 부부가 햇살 좋은 가을이 되면 빼놓지 않고 만드는 것이 있다는데. 바로 '동의보감'에 첫 번째로 소개한 처방이자 임금님의 수라상에도 올랐다는 경옥고. 인삼, 지황, 복령, 꿀 네 가지를 주재료로, 끈적해질 때까지 15일을 달이면 진한 밤색의 경옥고가 완성된다. 25년 전부터 찬 바람이 불면 가족을 위해 경옥고를 만드는 어머니. 젊어서부터 여러 차례 큰 수술을 치렀던 남편과 노상 허약했던 자식들이 통통하

충남의 명산, 서대산 아래 한바탕 벌어진 농악 한 마당. 추부면의 흥 넘치고 끼 이웃들 30여 명이 모여 매일 맹연습하는 농악단이란다. 금산에는 면 단위마다 농악단이 있고, 동네잔치나 행사가 열릴 때면 농악이 가장 먼저 풍악을 울리며 신명을 돋운다. 충남 무형문화재 제53호로 지정된 금산농악. 이제는 국가 문화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데. 10대에서 70대,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각양각색이지만 농악을 향한 열정만큼은 높은 가을 창공을 찌르는 금산 농악단. 그 대열에 합세해 신명 나는 한 판으로 금산에서의 여정을 마무리한다.

인삼과 함께 울차게 뿌리내린 인생들이 있는 곳. 몸과 마음에 활력이 붙어가는 보약 동네, 금산 이웃들의 이야기가 15일 저녁 7시 10분 KBS1 동네한바퀴 191화 울차다 인삼고을 - 충남 금산 편에서 공개된다.



# [글로벌 韓商]

## 인삼 세계화에 앞장, 필리핀서 온 최대영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마케팅 맡아 여수 대회서 홍보·수출상담  
"국제표기 진생(Ginseng)을 인삼(Insam)으로 바로잡는데 앞장설 것"



**홍보대사로 위촉된 장영식 월드옥타 회장**  
김영수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원장이 30일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장영식 월드옥타 회장을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있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제공]

"인삼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우선 국제 표기를 진생(Ginseng)이 아니라 인삼(Insam)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수에서 열린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주최 제26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참가한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의 최대영(57) 홍보마케팅 매니저는 3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때 김치가 국제사회에서 일본식 표기인 기무치로 알려졌던 것을 바로잡은 것처럼 올바르게 알려야 인삼의 주권과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매니저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필리핀에서 동포신문인 '마닐라 서울'을 발행하며 무역업을 펼쳐오던 기업인이었다. 그는 신문의 지분만 남기고 경영을 후배에게 넘긴 뒤 모국에서 인삼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최 씨는 "고려인삼으로도 널리 알려진 우리 인삼을 중국에서는 전칠(田七)삼, 미국은 화기(花旗)삼, 일본은 죽절(竹節)삼으로 각기 다르게 분류하지만, 표기는 진생"이라며 "1843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월드옥타 14통상위원회와 MOU  
월드옥타 14통상위원회의 이성욱 위원장(사진 좌측)과  
서병훈 금산물 대표는 30일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제공]**

년 세계식물학회에 처음 'Panax ginseng C. A. Meyer'로 인삼 학명을 등록한 데서 시작됐다"고 소개했다. 여기서 Ginseng은 인삼의 한자표기의 일본식 발음이다. 일본인은 고려인삼을 '고라이닌진'이라고 했고, 러시아의 칼 안톤 폰 메이어가 일본식 발음을 따라 고려인삼의 학명을 Ginseng으로 학회에 등록했다는 설명이다.

Panax는 그리스어로 모든 것을 뜻하는 'Pan'과 의약을 뜻하는 'Axos'가 합쳐진 말로서 만병통치약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최 매니저는 "동포사회에서 인삼은 건강 회복·유지 등에 꼭 필요한 가정상비약으로 인식돼 있다"며 "이런 인삼을 거주국 사정에 정통한 한상을 통해 해외 판로 개척을 모색하려고 대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은 대회 기간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수출상담회에도 참여했다.

4회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해 2곳과 100만 달러(약 14억원) 수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현장에서 30만 달러(약 4억3천만원) 수출 계약도 맺었다.

또 바이오 분야 등이 포함된 월드옥타 14통상위원회와 수출 협력 MOU를 맺어 인삼 해외 진출의 기틀도 마련했다.

그는 "인도는 파란색을 좋아하므로 붉은색 포장을 바꿔야 한다든가, 인삼 추잉검을 내놓으면 영국에 쉽게 알릴 수 있다는 등 한상 바이어와의 만남에서 귀중한 조언을 받았다"고 기뻐했다.

그는 월드옥타와는 2006년에 필리핀 차세대무역스쿨을



**최대영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마케팅홍보 매니저  
[촬영 강성철]**

수료하면서 가입해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이를 활용해 지난 6월 진흥원과 월드옥타 간 금산인삼 세계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얼마 전 끝난 전국체전 기간에는 세계한인체육회 소속 18개국 지회장을 금산인삼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세계한인언론인협회(세언협)와 금산인삼을 동포사회 및 거주국에 알리는 MOU도 체결했다.

덕분에 추석 기간 세언협을 통해 30개국에서 주문이 쏟아지기도 했다.

그는 "전국에서 유통되는 인삼의 75%가 금산인삼"이라며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재배에서 소비자에게 전달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 매니저는 "첫 대회 참가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며 "금산인삼의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데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진 월드옥타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인삼가격정보(자료: 금산군청)

상기 인삼류 가격은 일반적인 상거래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인삼의 전반적인 거래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 실제 거래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자료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금산군은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삼류 가격동향(2022. 10. 27.)

<b>4근 곡삼</b>	<b>30편</b>	37,200원	<b>50편</b>	36,000원	<b>75편</b>	34,200원
	전시세	37,200원	전시세	36,000원	전시세	34,200원
	등락	0원	등락	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38,400원	전년동기가격	37,200원	전년동기가격	36,000원

<b>4근 직삼</b>	<b>15편</b>	43,200원	<b>25편</b>	39,600원		
	전시세	43,200원	전시세	39,600원		
	등락	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43,200원	전년동기가격	40,200원		

<b>5근 직삼</b>	<b>15편</b>	45,600원	<b>25편</b>	43,200원		
	전시세	45,600원	전시세	43,200원		
	등락	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43,200원	전년동기가격	45,600원		

<b>6근 직삼</b>	<b>15편</b>	50,400원	<b>25편</b>	45,600원		
	전시세	50,400원	전시세	45,600원		
	등락	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50,400원	전년동기가격	45,600원		

<b>미삼</b>	<b>상품</b>	90,000원				
	전시세	90,00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90,000원				

<b>생건삼</b>	<b>상품</b>	90,000원				
	전시세	90,00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90,000원				



<b>생삼(수삼)</b>	<b>10뿌리</b>	29,000원	<b>20뿌리</b>	21,000원	<b>30뿌리</b>	20,000원
	전시세	29,000원	전시세	21,000원	전시세	20,000원
	등락	0원	등락	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26,000원	전년동기가격	21,000원	전년동기가격	21,000원

<b>생삼(수삼)</b>	<b>40뿌리</b>	20,000원	<b>50뿌리</b>	20,000원	<b>70뿌리</b>	20,000원
	전시세	20,000원	전시세	20,000원	전시세	20,000원
	등락	0원	등락	0원	등락	0원
	전년동기가격	21,000원	전년동기가격	21,000원	전년동기가격	23,000원

☞ 곡삼, 직삼 : 300g기준 / 미삼, 생건삼 : 600g기준 / 수삼 : 750g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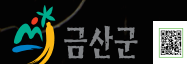


# 하늘선물 금산인삼

면역력에 답하다



금산군수가 품질을 인증하는 하늘선물 금산인삼!  
금홍마크와 G-마크로 정품을 확인하세요



QR코드로 제품정보 및 정품인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산이 Geumsan  
Ginseng  
뿌리입니다

**발행일** 2022. 10

**발행인** 김영수

**발행처** (재)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전 화** 041-750-1672

**팩 스** 041-750-1679

**주 소** 충남 금산군 금산읍 인삼광장로 25